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방역 및 방역관련 교회대응지침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의 급증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4단계 거리두기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개체교회들과 기관들의 대응지침을 안내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의 장소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4 단계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
- ◎ 정규예배는 주보에 명시된 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등이며, 각 **모임과 행사는 금지**.
- ◎ 비대면예배는 설교자, 사회자, 최소한의 예배 순서자, 영상제작과 온라인송출을 담당하는 자 등 **총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 예배 참석자는 체온체크를 비롯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성가대, 찬양팀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 설교자가 백신 1차 이상 접종 후 14일 지났다면, 설교 강단과 예배석의 거리를 3미터 이상 되도록 하고,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 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 ◎ 설교 이외의 **모든 임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방송법이나 인터넷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사업자가 예배 영상을 송출하거나 영상 제작과 송출 인원이 1인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교회 사역자와 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체온체크, 손소독, 출입대장 작성, 시설 방역과 환기, 공용물품 사용금지,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교회시설에서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가능하지만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친족에 한하여 49명 이내만 참석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식당'방역수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활동은 정부의 복지시설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의 세부지침에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